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2

❖

캡슐 속에는 어린 태웅이 들어 있었다.

젊은 서창과 한재호가 화면 속 수치를 확인하다, 캡슐 밖에 서 있는 소년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의 이름은?"

소년의 모습은 캡슐 속에 든 어린 태웅과 똑같았다.

"태웅이요."

백호는 태웅을 노려보며 말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요."

백호가 들고 있던 질문지 속 '좋아하는 음식은?' 질문에 대한 여러 객관식 답 중 '피자'에 동그라미를 쳤다.

"제일 좋았던 기억은?"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던 여러 객관식 답 중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것'에 동그라미를 쳤다.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좋아?"

어린 태웅의 모습을 한 소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엄마…?"

백호가 살짝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 동그라미를 쳤다.

뒤에서는 소연이 가운을 입은 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어린 태웅의 모습을 한 소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뒤에서 지켜보던 소연이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캡슐 안에 든 어린 태웅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 외쳤지만, 소리는 캡슐 안에서만 맴돌 뿐 밖에선 들리지 않았다. 백호는 더욱 고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어린 태웅은 백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백호는 울음이 듣기 싫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주머니에서 마취 총을 꺼내 어린 태웅의 모습을 한 소년을 겨눴다. 소년은 마취총을 보고 더욱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소연이 당황하며 소년을 감싸 보호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이건 마취총일 뿐이야. 더 들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또 실패작인데."

백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소연이 마취총을 뺏어들고 백호에게 겨눴다.

"결국 또 내 자식을 죽이는 건 나한테 시키려고?"

백호가 어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저기 멀쩡하게 있어. 이 애는 태웅이 아니고 실패작일 뿐이야. 지금 대답 못하는 거 봤잖아?"
"그래도 엄연한 생명체야! 나는 더 이상 내 자식을 죽이지 못해! 이건 아니야!"

한재호가 소연에게 다가와 소연을 달래며 나섰다.

"저와 서창이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가서 좀 쉬시죠."

재호는 오열하는 소연을 부축하며 실험실을 나서려 했다. 그러자 소연이 재호를 뿌리치더니 한쪽 벽면에 가득 놓인 캡슐들을 향해 달려가 하나 하나 신경질적으로 부수기 시작했다. 캡슐 안에 들어있던 포르말린에 절여진 실패작 태웅 클론들이 실험실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캡슐 안에 있던 진짜 태웅이 이 충격적인 모습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백호는 이 모든 상황이 짜증난다는 듯 냉정하게 실험실을 나가버리고, 서창이 뒤따랐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연을 위로하는 건 오직 재호 뿐이었다.

❖

한재호의 몸에는, 결박된 동념이 그랬던 것처럼, 온 몸에 케이블이 꽂힌 채, 그의 기억이 화면 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재호가 입을 열었다.

"태웅이는 어차피 기억하는 상황이겠고, 소연… 아니 사모님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제가 다시 클론이 된 거죠?"

재호는 대답 대신 태섭을 보며 물었다.

"동념은 깨어났나?"

태섭은 동념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동념은 케이블을 뜯어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었다.

"네, 아까요. 근데 다시 동념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동념, 방금 화면에 나왔던 일을 기억하나?"
"기억이고 뭐고 일단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데요."
"일단 조금만 더 있어주겠나? 부탁하겠네."
"부탁까지 하신다면… 알겠어요."

케이블을 뜯어내려고 버둥거리던 동념의 발악이 멈췄다.

"캣츠아이는 완전히 파괴된 건가? 아까 있었던 백호 단장의 기억은 다시 봉인된 상태고?"
"우선 캣츠아이는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재호의 물음에 태섭이 대답했다.

"현재는 기존 동념의 기억만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시 락이 풀렸을 때 급하게 녹화된 몇몇 기억들은 있습니다."
"음… 그럼 혹시 75년 5월 31일의 기억이 남아있나 확인해줘."

시스템을 체크하던 태섭이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태섭이 버튼을 누르자 소연의 외침이 들려왔다.

"당신 왜 이래! 난 싫어! 싫다고!"

화면 속에는 백호의 시점에서 백호가 소연을 붙잡고 침대로 집어던지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소연이 방에서 도망쳐 나가자, 백호가 사냥감을 쫓듯이 소연을 따라 방을 뛰쳐나가는 대목에서 재생이 끊겼다.

"여기까지네요."
"나머지는 동념의 기억에서 재생해주게. 동념의 몸에 소연의 의식이 있을 때 같이 공존했던 기억."

태섭이 재호가 말하는 부분을 동념의 기억 속에서 찾아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했다.

75년 5월 31일, 소연의 시점에서, 실험실의 높은 곳에서 투신하여 바닥에 떨어져 소연의 두개골이 박살나는 장면이.

"그러면 제가 저 날 투신을 해서 사망한 건가요?"

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제 남편이었다는 백호가 저를 다시 클론해낸 거고요?"
"그렇습니다."

소연의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블랙마켓에 있었던 제 클론들은요? 그건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한재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일부는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네모… 그러니까 서창이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클론으로 만들어야 했죠? 저 남편이란 백호는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글쎄요. 저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백호 단장은 당신의 클론에 무엇보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클론을 만들어냈지요."
"제가 클론이라면 저는 왜 멜트다운을 겪지 않나요? 그리고 제게는 비활성화 된 의식도 없지 않나요? 물론 기억나지 않는 것들 투성이지만?"
"당신은 아버지가 만든, 거의 완성형의 클론이니까요. 멜트다운을 겪지 않는. 의식이 하나 뿐인."

소연이 태웅을 보며 물었다.

"태웅 대장은 그럼 내가 대장의 엄마라는 걸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태웅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동념이 백호인 것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인 것은 몰랐지만, 아버지의 기술로 만들어진 완벽한 클론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었지…."

답답해진 동념이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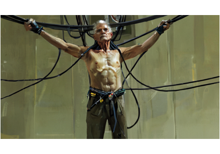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예요! 누가 정리를 좀 해줘 봐요!"

재호가 동념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동념, 당신은 백호 단장입니다. 당신은 백호 단장 당신의 최종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의 클론이죠. 다만 당신이 스스로 기억을 봉인해 놨기에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요."
"아니, 내가 나를 언제 클론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뭐구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모릅니다. 서창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

서창은 마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형상으로, 온몸에 케이블이 꽂힌 채 양쪽 팔이 각각 실험도구에 묶여 있었다.



또 다른 실험실, 치수가 대원들과 함께 시스템 속 서창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동념과 소연, 태웅, 재호가 이 모습을 참관하고 있었다.

"기억 데이터는 아직도 재생이 안 되나?"
"네. 전부 노이즈로만 읽힙니다. 강제적으로 락이 걸린 상태처럼 보입니다."
"내가 서창이었더라도 그랬을 거야."
"게다가 거꾸로 된 상태에서도 편도체가 너무 안정적입니다."
"다시 세워주고, 의식을 온 시켜줘 봐."
"네, 알겠습니다."

치수가 스위치를 조작하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서창의 몸이 돌아가더니 바로 선 상태가 되었다. 대원 중 하나가 전기가 통하는 긴 막대기로 서창의 복부를 찌르자, 강한 전류가 발생하며 서창에게 충격을 가했다. 서창이 전기 충격으로 살짝 몸을 떨더니, 눈을 떴다. 한재호가 서창의 앞으로 다가갔다.

"서창, 나 재호일세. 알아보겠나?"

서창은 대답을 거부했다. 동념이 서창 앞으로 뛰어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나 알아 봐요? 동념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던 거예요? 날 왜 키운 거고, 또 왜 죽이려 한 거예요? 도대체 그 화장장에 있던 건 다 뭐고요?"

서창이 동념을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바실라를 기억하나?"
"그게 뭔데요?"

서창이 동념을 한참동안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했다.

"바실라 비탈리 모르트 백호."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동념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재호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여전히 차분한 태도였다. 서창이 재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호, 동념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내었나?"
"단도직입적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동념이 백호의 클론이라는 것까진 알아내었지. 나머진 자네가 다 락을 걸어놔서 아직 알아내진 못했네. 백호의 코드도 잠깐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막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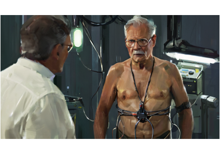
서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가 서창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알려줄 수 없나?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호 단장의 클론 기술이야. 그걸 알려주면 자네가 그간 네모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과오들에 대해선 느 내가 선처를 부탁해 보겠네."
"캣츠아이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

재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마치 주변의 눈치를 보기라도 하는 듯.

"원본이라니, 자네가 훔쳐가서 무슨 일을 벌였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찾은 캣츠아이는 파괴되고 말았네."

재호와 서창, 두 사람 사이에 신경질적인 기류가 흘렀다.



"왜 나를 죽이지 않았지?"
"다시 말하지만, 자네가 훔쳐간 백호 단장의 클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이미 훌륭하게 클론을 하게 계신 분께서."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의 클론 기술은 소울라이딩의 연장 기술일 뿐이지 않나. 즉, 클론을 하면서 장녀 발생된 의식을 비활성화하고, 그 위에 다시 의식을 라이딩하는 것. 그로 인한 피해는… 멜트다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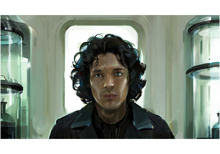
서창이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재호가 동념을 가리켰다.

"여기 자네가 그동안 숨겨왔던 증거가 있지 않나. 클론을 했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의식과 라이딩을 해도 죽지 않는 의식을 가진. 이게 백호 단장이 완성한 기술 아닌가?"

서창의 웃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동념을 보며 말했다.



"너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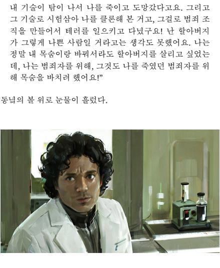
동념의 눈에 눈물이 핑 감돌았다.

"아니, 할아버지. 그럼 날 왜 키웠어요? 애초에 죽였으면 됐잖아요? 나는 할아버지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백호요? 나는 그런 기억 애초에 있지도 않아요! 부모님 기억도 없는 나한텐 할아버지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동념의 목소리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래, 아까 나한테 숨겨져 있었다는 기억도 봤어요. 내가 백호란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는 내 친구이자 동료인데, 내 기술이 탐이 나서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그 기술로 시험삼아 나를 클론해 본 거고, 그걸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테러를 일으키고 다녔구요! 난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정말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는데, 나는 범죄자를 위해, 그것도 나를 죽였던 범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어요!"

동념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나는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알고선 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념이 고개를 돌려 한재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장님. 나 좀 죽여주세요. 어차피 저는 껍데기에요. 제 원래 기억이 갖고 있던 기술은 이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냥 죽여주세요. 빨리요!"

태웅이 총을 꺼내 동념의 머리에 겨눴다.

"그만하고 입 닥쳐."

동념이 이마를 총구에 갖다대며 으르렁거렸다.

"아. 좋아. 얼른 쏴 줘. 너 내 아들이었다고 했지? 그래 아들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얼른 당겨!"

태웅이 방아쇠를 당길 듯 말 듯 망설이다, 총으로 동념의 머리를 휘갈겼다. 태웅이 바닥에 쓰러진 동념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네가 동념이든 내 아버지든 나도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술의 증명이야. 네 머리 속에 숨겨져 있는 기술이든, 네모의 머리 속에 있는 기술이든 우리는 빼내야 해. 그 기술만 빼내고 나면…."

태웅이 동념의 곁에 몸을 숙인 채,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고통스럽게 죽여줄 거야. 네가 그동안 네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고통스럽게. 네 아내이자 내 어머니에게 가했던 고통보다 더 잔인하게."

태웅은 일어나서 그대로 자리를 떴다. 모두들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서창이 눈을 감았다.

그때 준호가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한재호 원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의원님들이 급히 찾으십니다!"

Continued to ep.13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